아베 고보(安部公房)의 글쓰기 행위의 의미

— 해리(解離)의 공간으로서의 글쓰기 장 —

홍 병 기*

차례

Ⅰ. 서론 : 아베의 열린 결말과 작품의 완결성의 문제

세계 각국에서 번역되고 향수되어온 일본의 작가 중 아베 고보(安部公房, 1924-1993)는, 서구 독자들에게 엑조티즘의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져온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나,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등에 비하여 서구적 보편성을 획득[1]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스트[2] 작가라는 평가와 동시에 난해한 작품세계로 독해가 용이하지 않다고 이야기되어 온 작가이기도 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읽기를 통해 그 표현의 목적이 완성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다. 그러므로 재미있고 좋은 작품 혹은 난해한 작품이란 평가는 작품내부의 가치보다 독자의 기대의 지평과 어느 정도 교차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본인은 본고「아베 고보의 글쓰기 행위의 의미」를 통해 1960년대 아베 고보의 정신세계에 접근하는 대신 글쓰기의 주체인 작가와 글로서의 작품, 그리고 읽기의 주체인 독자들의 내면세계와 외면세계의 관계들을 비교 검토하여, 1960년대에서 현재까지의 독자들이 아베의 작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품에서 느끼는 난해함의 문제가 작가의 「글쓰기행위」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 스스로 『모래의 여자』(砂の女. 1962)와 『타인의 얼굴』(他人の顔 1964), 『불타버린 지도』(燃えつきた地図 1967)를 3부작으로서 위치지음으로서 현대를 그려내려고 했다고 이야기[3]한 이래 적지 않은 선행 연구자들이 이 세 작품을 연결시켜서 분석하고 있다. 구로사와 세이코(黒澤聖子)는 이 3부작을 관통하는 테마를 「신생의 세계로 출발하려고 하는 인간」[4]으로 파악하여, 이 3부작의 특질을 <소외관념-타자의 문제>로 파악하였으며 나미가타 쓰요시(波潟剛)는 이 3부작을 관통하는 테마를 <실종>으로 파악하여 이 3부작을 「실종3부작」이라 명명하여 분석한 바 있다.[5]

또한 3부작은 작품의 열려있는 결말과 관련지어 <구성의 실패>와 <균형감각의 결락>이란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미키 다쿠(三木卓)의 경우 『모래의 여자』의 결말의 도식성에 대해 언급하며, 구태의연한 희망을 이야기함으로써 힘들게 획득한 리얼리티를 잃어버렸다고 평가한 바 있으며[6] 가즈사 히데오는 기억을 상실한 『불타버린 지도』의 주인공이 바깥 세계에 관여하려는 의지를 잃고 고독으로 돌아가는 결말로 인해 본 작품은 자신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거부된 후,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남자의 이야기라며, 이는 작가의 「주체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 비판하였다. 가즈사는 『불타버린 지도』는 「틀림없는 실패작」이며 작가의 감성 과잉으로 인해, 소설 본래의 골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7] 상반되는 견해로는 다카야마 데쓰오(高山鐵男)의 평가[8]를 들 수 있다. 다카야마는 동일한 구조들을 갖고 있는 3부작의 주인공들은 타자의 세계로부터의 도망자들이지만, 그들이 도망의 종국에 진정으로 타자들과 만나려고 하는 이야기로서 3부작을 파악하고, 그들이 타자와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 작가가 결론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희망할 자유를 독자에게 남겨두었다고 평가함으로써 3부작의 열린 결말을 긍정하고 있다.

Ⅱ. 본론

1.작가의 페르소나와 실종되는 독자

우리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중심인물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종국에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설정이 아베 소설의 한 특징임을 알 수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정착해 있던 공간에서 튕겨 나온 작중인물이 결국 원위치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제시를 작가가 방기함으로써 작품세계의 질서를 추적해오던 독자를 실종 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최인훈은 아베 고보의 열린 결말에서 미래에 대한 지평이 부재함을 비판하고 있다. 최인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완결된 신화의 시간 속에 변화를 위한 지평을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 리얼리즘이다. <열린 완결>이란 이 아포리아는, 순수 논리라는 닫힌 축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관념과 풍속이 교차하는 현실의 공간에서의 異壤한 사실을 표기한 것뿐이다. 이 모순의 극복은 인식의 차원에선 불가능하다. 세계는 자연의 어둠을 향해 열려 있고 인간의 결단에서 완결된다. 모순의 극복은 현실을 자연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로 보고 부단히 변하는 좌표점을 따라가는 데서 가능하다. 아베의 소설들이 달성한 높은 완결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엔 라신의 세계처럼 미래의 지평이 없다. 뛰어난 존재론적 도식화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성실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그의 진실도 거짓말이 되고 말 것이다.[9]

분명 아베의 작중세계의 결말은 열려있으며, 무책임한 듯 보이기도 한다.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놓고는 종국에 그들(등장인물과 독자)을 내팽개쳐버렸다고도 할 수 있다. 독서과정에서 혼란을 느끼게 되는 독자와 마찬가지로 아베의 3부작 속의 등장인물들 역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분열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분열된 자아를 갖고 있는 그들이 소설 세계에서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분열과 글쓰기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각 작품의 주인공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각 작품의 주인공들은 작가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들로서 아베와 유사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왜 작자는 이런 인물들을 조형해 내고 있는것일까?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나아가 아베에게 글쓰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한 실마리를 표1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자.

	작가	「모래의 여자」	「타인의 얼굴」	「불타버린 지도」
	아베 고보	니키 준페이	나	네무로 히로시
출생년도	1924	1927.3.7	×	1932
실종당시(연령)	×	1955(28)	×	1966(34)
작중현재(연량)	×	1962(35)	×	1967(35)
발표시 작가연령	×	1962(38)	1964(40)	1967(43)

<표1> 작가와 등장인물간의 연령 비교

위의 표를 보면『모래의 여자』의 주인공「니키 준페이」와 작가 아베의 연령차는 3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또한『모래의 여자』의 5년 후 작품인『불타버린 지도』의 실종자「네무로 히로시」는 니키 준페이보다 정확히 5살이 어리다. 또한 작중 현재 시간에서 두 실종자의 나이가 35세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아베의 작중세계와 작가 아베 사이에 어떤 종류의 질서가 내재해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타인의 얼굴』의 주인공「나」가 결혼생활 8년째에 접어 든 해에 아내와의 관계에 파국이 찾아오는데, 1947년 결혼한 작가 아베가 결혼생활 8년째에 접어드는 1955년의 시점에서『모래의 여자』의 주인공 니키 준페이가 애틋하지 못한 관계의 아내 몰래 곤충채집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된다는 설정 역시 아베의 현실세계와 그의 페르소나들의 세계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작가와 작중인물들 사이의 좀더 구체적인 연관점을 찾아본다면『불타버린 지도』의 탐정인「나」와 실종된「그」에게 공통된 운전 취미와 사진촬영 취미가 아베 고보 자신의 취미이기도 하다는 점이다.[10)]

또한『타인의 얼굴』의「나」가 잠이 오지 않는 밤「상상 속에서 포수가 되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향해 들입다 갈겨댔다. 그리고 그 초연 속에서 겨우 다시 잠에 떨어졌다.」는 문장과『불타버린 지도』의「나」가「1년이면 두 세 번은 반드시 꾸는 웃고 있는 만월에 쫓기는 꿈이 어째서 그다지 두려운 것일까」와 같은 문장은 작가가 에세이에서 밝힌 자신의 체험과 일치한다.[11)] 또한 아베가 자폐적 성격이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세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모두 자폐적 취미와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12)]과 그들의 글쓰기 행위가 타인에게 열려있는 글쓰기가 아닌 자폐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도 공통된 특징이다.

이어서 아베의 페르소나인 주인공들의 분열된 내면양상을 해리장애란 측면에서 검토함

으로서 독자적 측면에서의 독해의 난해함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보고 비판 받아온 열린 결말이 갖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2.해리 정체성 장애와 다중인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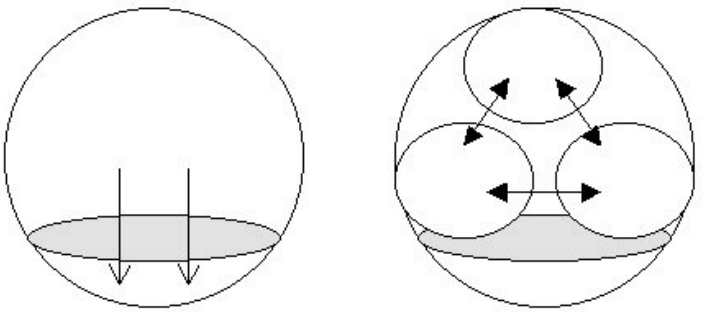
해리(解離)란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유기체의 자기 방어기제의 일종이다. 일반적으로 유기체의 대표적인 자기방어기제로는 억압(抑壓,repression)과 해리(dissociation)를 들 수 있다.

유기체는 외부 환경과의 접촉과정에서 입력된, 의식 내에 담고 있기 힘든 어떤 정보들을 의식 밖으로 밀어내거나 의식 내에서 의식 사이의 흐름을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억압과 해리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억압이란 프로이드(Sigmund Freud)의 용어로 의식 내에 담고 있기 힘든 내용물(고통스럽고 불쾌한 관념, 사고, 기억)들을 무의식속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 기제이다. 때로 억압된 기억은 꿈의 형태로 혹은 음주나 약물들에 취한 상태에서 의식 표면으로 다시 부상(浮上)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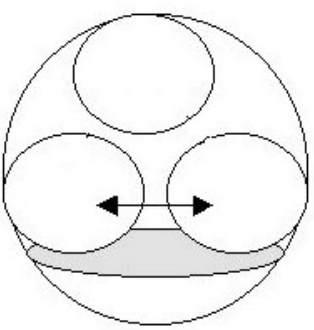
『타인의 얼굴』의 「나」가 반복해서 꾸는 「두 명의 아버지의 꿈」[13], 앞에서 예를 든 「만월에 쫓기는 꿈」 등이 그 부상의 예일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얼굴』의 「나」가 가면을 쓸 때 신경안정제 복용량을 늘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식 수면 밑에 억압되어 있던 파렴치한 욕망[14]이 단지 「가면」에 의해서 뿐만이 아니라 신경 안정제를 통해서 추인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리란 쟈네트(Piere janet)의 용어로 의식과 기억의 흐름 속에서 사고 감정, 경험의 정상적인 통합이 일시적으로 상실되거나 자신의 정체성이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림 1> 인간의 의식도표

<그림1>의 좌측의 구체는 의식의 수면 밑 무의식의 영역으로 기억을 밀어 넣는 억압 현상을 나타내며, 우측의 구체는 의식이 일시적으로 분리되는 해리현상을 나타낸 그림이다.[15] 짧은 순간이라도 연결지을 수 없는 경험의 구획화(區劃化)[16]로서의 해리는 정상인에게 언제든지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며 운전을 한다든지. Mp3 음악을 들으며 채팅을 할 수 있는 것은 해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리시켜 주기 때문이다.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거나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해리는 자연스럽게 발생한다. 그 분리된 전체성 사이의 간극의 흔적, 구획화된 경험의 공백이 우리가 흔히 체험하는 건망증이다.



<그림 2> 해리 정체성 장애의 예

정리해 보면 억압은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속으로 생각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해리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 사이의 연결을 분리해 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현재 상황을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한다. 억압과 해리는 과거의 기억과 관련한 문제로서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서 자신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확인하여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행위 즉 자기 정체성의 확보를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결국 정체성의 문제는 기억과 깊이 관련 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나아가 글쓰기행위 역시 기억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자.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래의 여자』의 주인공인 니키 준페이가 유수장치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행위, 『타인의 얼굴』의 주인공 「나」가 아내에게 읽히고자 혹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자 써가는 수기를 적는 행위, 『불타버린 지도』의 실종된 네무로 히로시가 일기를 쓰고 「기억의 의미」라는 제목의 사진앨범을 제작한 행위 그리고 네무로 히로시를 추적하는 탐정인 「나」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결국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서 과거와 현재를 이어나가고자 하는 행위이다. 본 논문에서 해리에 대해 다루는 이유는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특질을 갖고 있는 글쓰기 행위와 그로인해 동요하는 글쓰는 이의 정체성의 혼동으로서의 해리장애 현상이 문제가 아베 고보 문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해리를 체험한다. 건망증뿐만 아니라 백일몽이나 고속도로 최면(Highway hypnosis)도 해리에 해당된다. 정체성의 일시적인 분리로서 해리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하지만 해리가 극단적으로 일어나서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분리된 자아상태들을 합칠 수 없게 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해리 장애라고 한다. 과거와 현재간의 시공간적 연속성을 상실한 상태로서, 술에 취해 기억이 끊어진 존재가 눈뜬 후 느끼는 공백감을 추측해 보면 이해하기 쉽다. 술에 취해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을때 누군가가 설명해 줌으로써 그 공백을 메우는 자신의 기억에는 없는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는 차원에서의 해리장애는 가상의 이야기와 긴밀히 연결된다.

실종 3부작에서 해리 장애의 대표적인 예는 『타인의 얼굴』에서 주인공인 「나」가 가면의 「그」로 분리된 예를 들 수 있다. 『불타버린 지도』에서 상상의 남편에게 간질임을 당하며 혼잣말을 하는 「여자」나 『모래의 여자』에서 혼잣말의 대상인 상상의 재판관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고함치는 「남자」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해리 정체성 장애는 종래 다중인격장애(Multiple Personality Disorder)란 명칭으로 불려 왔는데 1994년 미국 정신병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는 다중인격장애라는 명칭을 해리 정체성 장애(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로 변경하였다. 이 증후군이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해리 장애는 충격으로부터의 정신적

도피로 파악되는 기억상실증(Psychogenic Amnesia)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억상실이란 죽을 뻔한 사고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 예를 들어 친족의 죽음이나 배우자의 부정 등과 같은 커다란 충격 후에 갑자기 일어나는 의식의 공백이다.

『타인의 얼굴』에서 주인공인 「나」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상인격인 「그」와 아내인 「너」의 불륜에 질투를 느껴 아내와의 관계회복을 시도하던 「나」에서 유혹자인 「그」로 전환해간다.

> "그 사람 돌아왔습니까?"
> "네에, 그래도, 금새 다시 일이 있다면서……"
> "당신이 나와 주어서 다행이군, 그가 나오면 그냥 끊을 작정이었는데"……"
> 자신의 너무너무 무모함에 조리를 세우자고 가벼운 기분으로 말했는데 너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가만히 이렇게 말했다.
> "가엾어요……" (밑줄 인용자)[17]

위 인용문에서 「나」는 일시적 해리 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다. 가면을 쓴 채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주인공은 아내가 자신의 가면을 꿰뚫어 보고 있음을 모른 채 아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기 아내에게 남편은 돌아왔느냐고 묻고 있다. 자신을 「그」라는 3인칭으로 호칭함으로써 「나」의 정체성은 가면의 「그」에서 분리되어 나와 가면의 「나」로 고정되어 버린다. 즉 자신의 가상인격을 3인칭이 아닌 1인칭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인공은, 밑줄친 <가엾어요>라는 발화가 지칭하는 대상이 아내의 불륜대상이자 가면을 쓴 자신이 아니라, 아내의 불륜을 모르고 있는 얼굴에 화상을 입은 「그」(역시 자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주체로서의 「나」가 자신의 얼굴상처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상정했던 「그」라는 가상인격에 주도권을 빼앗겨버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태로 해리가 진행된 경우를 해리장애라고 부른다. 가상의 존재를 자신이 만들어냈다는 기억이 공백화된 것이다.

해리 장애의 원인으로 이야기 되는 트라우마(Trauma : 심적 외상)는 『타인의 얼굴』의 「나」의 얼굴상처와 같이 영구적으로 정신적인 상처를 남기는 충격적 사건에서 기인한다. 트라우마는 추행, 신체 공격, 강도 강간, 유괴, 인질, 전쟁 전투, 포로수용소 수감, 자연

적 혹은 인위적 재해, 타인의 상해나 죽음을 목격하는 것. 예상치 못한 시신이나 신체 일부를 목격하는 것. 또는 자동차 사고, 충격적 사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데 다음의 인용문은 트라우마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18]

> 이미 20년 이상이나 전의 일이지만 나는 아기의 유기사체(遺棄死體)를 본 적이 있다. 그 사체는 학교 뒤의 풀숲 속에 위로 향한 채 넘어져 있었다. 필시, 야구공을 주우러 가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다고 기억한다. 사체는 고무공처럼 부풀어 전체가 어렴풋이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입 주변이 움직인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주의하여 들여다보니, 셀 수 없는 구더기가 입술을 뚫고,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매우 놀란 나는, 그로부터 수 일동안 변변하게 식사도 목으로 넘길 수 없을 정도였다.[19]

위의 인용문은『타인의 얼굴』의「나」의 어린시절에 각인된 충격적 기억이며, 또한「나」와 아내 사이에 반복된 자연유산 사건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억압기억이다. 트라우마는 극한 공포와 혼란스러운 환경에 기인한 억압기억으로 강하게 각인되어 인간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심리적 갈등과 고통을 느끼게 한다. 압도적인 갈등과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이들은 자신의 의식의 구역경계를 새로 정하게 (무의식으로 밀어내거나, 자아 간의 분리를 시도하거나) 되는 것이다. 그들은 의식 속에 새로운 구역을 만들어내서 그 공포를 가둠으로서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이는 자기 구제 차원에서의 기억상실의 시도(공백의 생성)라 할 수 있다.[20]

물론 기억이 돌아올 때는 대부분이 완전하게 돌아오며 후유증은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과거의 외상적 경험으로 해리적 반응을 보여 왔던 사람들은 대처 전략으로 해리를 반복 학습함으로써 경미한 외상적 사건에 대해서도 기억 상실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된다.[21] 실종 3부작에 있어서 기억상실에 이르는『불타버린 지도』의 탐정인 「나」와 아내와의 대화를 들어보자

> "흔히 사람들이 물어오곤 해 어쩌다가 흥신소 조사원 같은 게 됐느냐고, 그런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겠어?"
> "어차피 진짜 대답은 안 하겠지요"
> "이렇게 대답하지. 아내가 내 소행 조사를 하기 위해, 탐정을 고용했어요. 그런 그 탐정이 중도에 배반을 해서는 나더러 입막음 청구 값을 청구해 왔지 뭡니까? 나에게도 약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신뢰라고 하는 걸, 이 지경으로까지 짓밟혀서야 이제 제대로 세상 볼 낯도 없는 것 같고 도무지 어이가 없어져서……"

"꾸며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까지도 나를 나쁜 여자로 써먹지 않고서는 성이 차지가 않는가 보죠?"(밑줄 인용자)[22]

「나」스스로 아내와 별거한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이 사실인양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행위는 인위적으로 기억을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행위이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나」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사람들이 물어오면 반복적으로 거짓을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학습은 종국에 기억상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해리장애가 정체성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해 해리 장애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종래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다중인격 장애」로 불리워 왔다. 다중인격장애란, 한 개인의 행동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변화된 성격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한 성격이 또 다른 성격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적의를 품은 행동을 함으로써 그 장애적 성격이 타인에게 노출된다. 즉 다중인격은 하나의 개체 안에 둘 이상의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의 인격이 존재하고, 본래의 인격이 통제할 수 없는 또 하나(혹은 이상의)의 인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격간의 관계는 숙주(host)와 기생충(alter)의 관계와 같이 상정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각각 <주인격>과 <보조인격>으로 부르기로 한다. 주인격이 보조인격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역의 경우를 다중인격장애라고 할 수 있다. 다중인격장애의 경우 보조인격은 주인격을 인식하지만 주인격은 보조인격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23]

다중인격장애가 사회적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중인격장애자가 한 행위를 무의식적으로 간주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즉 실제로 자신의 의도를 넘어서는 보조인격의 조종을 받는 것인지는 논쟁거리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보조인격의 행위이므로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할 경우 다중 인격장애자와 의사(擬似)다중인격장애자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97년도에 있었던 박나리양 유괴 살해 사건의 피고인의 경우는 다중인격의 진실성의 문제를 생각해볼 기회를 주는 좋은 예이다.

"피고인은 있지도 않은 공범을 창조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할 변명거리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공범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주장은 확실한 근거도 없습니다."

2일 오전 서울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박나리양 유괴살해사건의 전현주(29) 피고인에 대한 특별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전피고인의 정신적 장애와 공범 존재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공판에는 93년 전피고인을 상담치료한 정신과 전문의 송수식(57) 박사가 증인으로 나와 "전피고인이 '연극성 인격장애'가 있어 가공의 공범을 만들고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송박사는 "연극성 인격장애환자는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 행동을 과장하고 심하면 가공의 인물을 만들기도 한다"며 "전피고인은 당시 가상의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때문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피고인이 △유서와 독약을 준비한 채 도피행각을 벌이고 검거 후에도 자주 실신하는 등 행동이 지나치게 연극적인 점 △현장검증 때 범행상황을 정확히 재연한 점 △문예창작과 출신으로 상상력이 뛰어난 점 등을 들어 "공범은 전피고인 머리 속에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은 "전피고인에게 '연극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속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전피고인이 가공의 공범과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의뢰여부를 다음 공판 때까지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다음 공판이 주목된다. 〈부형권 기자〉 (밑줄 인용자)[24]

해리 정체성 장애와 다중인격의 차이는 무엇인가? 「꾸며낸 이야기」, 「연극성 인격장애」라는 표현이 그 경계선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격장애는 의식하지 못하는 요소가 행동, 기분과 사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25]이며 그래서, 해리성 장애로 현저하게 나타난 행동상의 장애들이 무의식적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즉, 그 환자의 의식과 자발적인 통제를 넘어서는 정신적인 힘의 결과로 생긴다는 것이다. 보조인격이 주인격을 통제한다는 설정은 흥미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빙의(憑依)현상을 연상시킬 만큼 비과학적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다중인격 장애가 실제로 존재하는 질환인지 환자들과 병리학자들에 의해서 재생산되어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분분하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다른 인격을 몸 안에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건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의 해리 정체성 장애는 성장기의 트라우마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 안에 또

하나의 타인을 상정하는 식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가상인격의 확립(다중 인격, 해리)을 시도하게 된다.

또한 근래 소설 영화 등의 미디어의 영향은 해리 체험자 자신이 다중 자아를 가진 것처럼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중인격의 비현실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진위를 불문하고 그들의 행위가 자기 보호를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해리 정체성 장애는 어린아이의 경우 더 많이 발견되는데 어린아이는 물리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은 해리를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도망치는 것이다. 해리는 학대가 마치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났었던 것처럼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고통에 대해 방어하는 것으로 이야기 된다.

유기체의 자기보호 기제로서의 일시적 해리가 장기적, 혹은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해리 정체성 장애의 특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보조인격이 주인격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 바꿔말해 주인격이 보조인격에 지배받는 상황,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건망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기억상실상태란 특징을 갖는다.

현실의 모든 것들의 존재는 바로 과거 사실들과의 줄긋기 행위로 인해 설명될 수 있으며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단서,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 사이의 줄긋기, 그것을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같은 기억을 재구성하는 행위를 통해 인간들은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납득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여간다.

해리 장애환자들은 자신을 주인격과 보조인격의 분리라는 해석에 맞도록 남들에게 보이는 법을 배우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다중인격에 맞도록 그들의 인생을 재구성하고 꾸미는 법을 반복 학습함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시도한다. 정체성의 문제는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 주체와 타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가정 사회 학교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확립되고 생산되는 것이다. 정체성의 혼란 분열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체험의 실패 혹은 낙오에 기인한다.[26] 세상을 바꾸고 싶은 존재가 결국 세상과의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바뀌는 행위. 이것을 해리라 할 수 있으며, 해리가 진행되어 결국 자기의 기억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여 꾸며낸 이야기를 진실로 믿게 되는 현상, 보조인격(alter)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증상

이 바로 종래 다중인격 장애로 불려왔던 해리 장애이다. 다중 인격 장애는 한명의 자아 안에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는 일견 비현실적인 상황을 전제함으로써 그 진위 여부가 의심받아 왔지만 이를 해리란 차원에서 볼 때 이 문제는 현실 극복을 위해 자신을 타자화 하는 행위(주체의 타자화, 주체의 중심성 상실), 즉, 정체성의 실종과 연관시켜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27]

3. 해리의 공간으로서의 글쓰기 장

작품이란 작가가 자신의 현실세계와의 보다 바람직한 관계를 추구해보려는 의지의 산물이며 이때 작가가 자신과 현실세계와의 사이에서 야기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창안하는 것이 내레이터이다. 작가는 현실감 있는 작품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 내레이터를 설정하여 이야기를 기술해나간다. 내레이터도 또한 자신의 <지문>만으로 작중세계를 이끌어가는 대신 등장인물의 목소리인 <대사>들을 통하여 리얼한 작중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

전지적 내레이터에 의해 제시되는 작중세계보다 제한적 내레이터에 의해 제시되는 세계를 독자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은 실제로 타인의 내면을 알 수 없고 자신의 내면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정상상태이기 때문이다.[28] 그러므로 전지적 시점보다는 제한적 시점을 통해 제시되는 세계에서 독자들은 현실감을 느끼는 것이다. 소설가가 되고 싶어하는 니키 준페이에게 하나의 리얼한 작품 세계를 창조하고 싶다는 욕망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엿볼 수 있다.

> "작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요컨대 꼭두각시 놀이꾼이 되어 자신을 인형들로부터 구별하려고 하는 에고이즘에 지나지 않는 거요. 여자의 화장과 본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소."[29]

위의 문장은『모래의 여자』의 주인공 니키 준페이 혼잣말(가상의 존재와의 대화) 중의 발췌문이다. 즉 타인들과 자신을 구별짓기 위해 자신을 타자화 하는 행위가 화장과 창작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화장이든, 자신의 의식속에 상상의 도시를 건설해가는 창작행위이든 간에 타인의 승인행위를 배제할 수는 없다. 존재의 표현으로서 글쓰기 행위는 읽어주

는 존재를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이다. 다음 문장의 심부름 값을 타지 못한 아이의 표정이라는 것은, 읽히지 않는 소설을 쓰는 소설가의 표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 작자가 되지 않는다면 뭐 쓸 필요 같은 게 없는 거요……그런데 심부름 값을 타지 못한 아이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던가?[30]

남들과 다른 존재로서 소설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작가에게 있어서 읽힐 수 있는 소설을 쓴다는 행위는 주인공의 의식과 행동 그리고 그가 접해가는 사건 전부의 의미를 내레이터가 제한적으로 밖에 파악 할 수 없는 제한적 시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것이 보다 독자에게 현실감 있는 작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론 소설 창작의 이와 같은 제약은 내레이터만이 안고있는 문제가 아니다.

소설 세계의 <꼭두각시 놀이꾼>인 작가 역시 내레이터의 서술진행의 전략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다. 글을 쓸 때 글 쓰는 이는 글 자체의 선형(線形)적 전개에 의해 자신의 의도와는 별도로 뒤에 오는 글이 앞에 오는 글에 의해 통제 받는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글쓰기 공간에 있어서 작가와 내레이터간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내레이터와 시점인물, 주인공과 등장인물간의 정보 사이에도 제대로 파악해 낼 수 없는 사각(구획화된 공간)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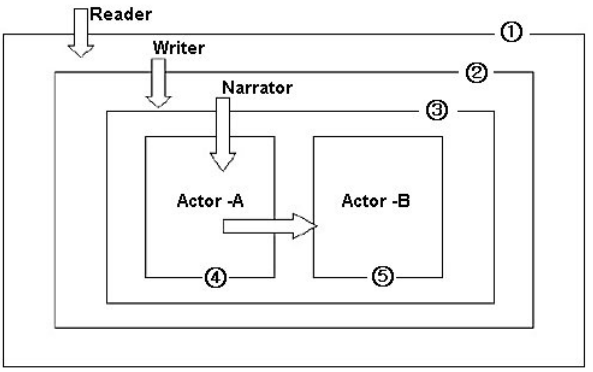
글을 쓰는 행위는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상실되는 것을 대비하여 그 기억을 유지하고자 기록하는 행위인 것이다. 소설의 경우 <쓰여진 존재>는 <쓰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지만. 자신이 창조한 <쓰여진 존재>와 관련된 기억을, 차츰 상실해 가는 <쓰는 존재>는 점차적으로 <쓰여진 존재>의 행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기는 것이다.

이는 글쓰는 존재는 가변적인 요소이지만 쓰여진 텍스트는 불변요소라는 사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불타버린 지도』의 버스 시간표가 무의미해지는 현실은 버스 시간표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버스 시간표 라는 텍스트 밖 세계가 가변적이기 때문이다.[31]

유동하는 세계에서 함께 유동하는 대신 정착하여 자폐적 시도를 해가는 실종3부작의

주인공들의 글쓰기 행위는 (니키 준페이의) 곤충채집이나, (네무로 히로시의) 사진 촬영과 마찬가지로 결국 글을 통해 유동하는 세계에서 고정적 실체를 확보하려는 행위이다.

글쓰기 장의 해리 장애라는 차원에서 다음 <그림 3>을 통해 그 구조를 파악해 보기로 하자.



<그림 3> 해리의 공간으로서의 글쓰기 장

작가에 의해 창조된 보조인격인 내레이터는 종래 작가의 목소리의 차원에서 점차 독립해나가 독자적(獨自的) 타자로 기능하게 되고, 작품 차원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갖는다. 내레이터는 창작 전략상 자신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기술하기보다 또 다른 보조 인격인 시점인물을 설정하여 시점인물의 눈에 비친 세계속의 중심인물 이야기를 기술한다. 이때 그 시점이 중심인물의 내외면 중 어느 쪽에 맞춰져 있는 가에 따라 내부시점과 외부시점으로 나뉘어 진다. 이 지점에서 자신을 타자화 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극복해 보려는 해리성 장애 증후군이 결국 자신을 타자화 하는 소설과 동일한 차원의 자기 구제행위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의 구역 ①은 소비 공간으로서의 책이다. 외측에 독자가 존재하고 내측에 작가가 존재한다. 구역 ②는 창작공간으로서의 책이다. 그 외측에 작가가 존재하고 그 내측에 작가가 설정한 가상인격인 내레이터가 존재한다. 내레이터에 의해 제시되는 작품속의 세계가 구역 ③으로 나타난다.

내레이터는 전지적 시점일 경우 등장인물 A와 B의 내면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제한적 내부시점을 취하고 있는 실종 3부작의 내레이터들은 시점인물이자 중심인물인 A의 내면과 A가 접하게 되는 작중 외부 세계 구역 ⑤의 외측과 구역 ③을 묘사하게 된다. 중심인

물 A가 등장인물 B의 내면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제한적 내부시점이라고 부를 수 있다.

앞에서 인용한 박나리양 유괴사건 관련 기사에서 유괴범의 인격장애가 가상의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는 병력과 문예 창작과 출신이라는 배경으로 그 진위 논쟁이 전개된 예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인격장애의 구조와 상상력에 기반을 둔 소설의 구조는 동일하다. 바로 <꾸며낸 이야기>인 것이다.

『타인의 얼굴』의 주인공인 얼굴을 다친 남자가 아내인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나」로 호칭하면서 가면을 쓴 나를 「그」로 타자화함으로써 아내인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자신을 분열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황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등장인물들이 자주하는 혼잣말(「니키 준페이」와 「네무로 하루」타인의 얼굴의 「나」)역시 말하는 「나」와 듣는 「나」의 분열현상인 것이다.

『불타버린 지도』에서 탐정인 「나」에게 의뢰인의 동생은 「확실히 기억상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과거의 기억만을 잊어버리고 현재의 일」에 대해서는 판단력을 잃지 않은 경우는 타인이 되어 다른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판단력도 잃어버린 「미치광이가 될 경우 금방 경찰의 보호를」받게 될 경우 실종자를 찾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32]

3부작에 있어서의 실종은 금치산자(禁治産者)가 되어 버리는 실종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만을 잊어버리고 판단력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가진 존재의 적극적 실종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존재의 실종이란 측면에서 해리와의 관련성을 찾아보도록 하자.

추리소설 형식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불타버린 지도』의 <잃어버린 고리 찾기>는 결국 실패하고 만다. 물론 그것이 본 작품이 실패작이라는 평가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인다.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낼것이라고 자신하는 탐정은 작품 초반 다음과 같은 사고를 독자에게 제시한다.

> 지혜의 고리라는 놈은 잘라내기 보다는 본래대로 조립시켜 놓는 편이 훨씬 편하고 자연스럽다.[33]

하지만 작품 종반에 이르면 「과거에의 통로를 찾는 일은 이제 집어 치우자」[34]는 사고로 전환되고 만다. 그렇다면 작중의 <고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의문은 네무로 히로시가 가출하던 날 아침 클립을 가지러 다시 돌아왔었다는 사실과 연결(Link)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클립은 무슨 의미인가. 왜 실종된 그가 클립을 찾으러 집으로 돌아왔었는가에 대해 실종자의 부인인 네무로 하루와 탐정인 「나」는 고민을 해보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었다.[35]

독자역시 그 해답을 알 수 없다. 본 작품에서 클립의 진실은 은 진화론에서 유인원과 인간사이의 발달 과정의 공백을 의미하는 미싱링크(missing link)와 같이 제거되어 있다. 연결됨으로써 사슬을 만들 수 있는 클립의 의미가 작품세계에서 결락되었다는 것은 결국 작가가 클립을 정체성을 연결시킬 수 없는 경험의 구획화의 물적표현. 사라져버린 비존재를 물적 존재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타자와의 연결이 끊어진 것. 그것을 실종이라고 할 때 「눈뜬 채 꿈에 시달리고 환영의 남편에게 간질임 당하며 미친 듯이 웃고 혼잣말에 잠기고 있는 알콜중독이 되어가는」[36] 네무로 하루가 남편의 조사의뢰를 흥신소에 요청한 이유가 그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37]라는 것은 남편의 비존재의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며 결국 존재의 이유라는 것은 개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해리장애의 원인 역시 개체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 공동체와의 관계 즉 개체 외부에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작가 아베의 <모래로서의 인간형>[38]의 또 하나의 발전적 가능성을 <클립으로서의 인간형>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모두 타인」이기 때문에 체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불타버린 지도에서 탐정인 「나」가 주어진 정보(形見)들을 가지고 남자의 실종의 정보를 알아내려 하지만 결코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공백, 구획화 되어버린 남자의 기억이 타인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조차 타인이 되어버릴 때, 결국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 없는 해리 정체성 장애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 여하간에, 타인의 눈이 되어서 본다는 건, 재미있거든. 이제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게 이런 식으로 문득 보여지기도 하니까[39]

위 인용문은 해리장애가 진행되기 전 타인의 얼굴의 주인공「나」의 주장이다. 하지만 주도권을 보조인격에게 빼앗겨 감에 따라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만든 꾸며낸 이야기 안에 갖히게 됨으로써 아래와 같은 논쟁이 진행된다.(물론 혼잣말에 다름아니다.)

> "그럼, 대체 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럴 기분만 내키면, 너 따위 지금 당장이라도 잡아뜯어버릴 수 있어"
> 그러나 가면은 태연히, 아무 일도 아닌 듯 받아넘겨
> 알고 있지, 누구도 아닌 것에 말이야, 지금껏 연성 누군가이기 위해 고생을 참아왔기 때문에, 모처럼 이런 기회를 잡고서 다시 한번 누군가가 되다니, 그런 손해 보는 일은 사양하겠어. 너야말로, 설마하니 나를 누군가로 양성해 내자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 생각하는 것으로, 어차피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대로 해보기로 하지 그래[40]

Ⅲ. 결론: 아베의 열린 결말의 의의

자신이 타인화 될 수 있는 행위인 글쓰기에 있어서 글쓰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분열적 속성에 추인되어 분열된 주인공이 결국 실종상태에 빠지는『타인의 얼굴』의 예와 같이 작가 아베 고보는 실종 3부작에 있어서 실종이란 문제를 실종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차원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인간은 모래와 같이 유동하는 개별적 존재이지만 클립과 같이 타인과의 연결이 절실하다는 것을 작중 인물의 글쓰기 행위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작가 아베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작가와 등장인물의 관계가 보조인격과 주격의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다.

> 하여튼 소설을 쓴다고 하는 작업은, 누군가 타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41]

완벽한 해리장애가 일어나는 경우, 즉 보조인격인 작가가 주격인 등장인물들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소설의 세계는 작가의 뜻대로 조형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페르

소나와 자신을 혼동, 동일시하고 있는 아베에게 있어서 불확실한 자신의 자아를 완벽히 통제하는 자아로서의 작가를 조형해 낸다는 것은 뒤집어진 세계를 다시 뒤집어가는 <자신의 꼬리를 문 뱀>과 같이 순환하는 자폐적 글쓰기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아베 고보의 실종 3부작의 열린 결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원히 반복되는 자폐의 공간으로서의 글쓰기가 아닌 대화의 공간으로서의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작가가 실종3부작이란 작품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작품론적 차원에서 이 작품의 열린 결말은 구성의 실패, 혹은 균형감각의 결락으로 파악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균형감각을 찾기 위해서 작품 세계 안에 부재하는 독자들을 시야에 넣을 때 본 작품군은 하나의 구성적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열린 결말이 실패가 아닌 이유는 결국 닫아버렸을때 완성되는 해리장애적 세계(작가가 완벽하게 통제하는 글쓰기 공간)에 대한 작가의 저항의 흔적이 열린 결말에서 보여지기 때문이다.

본 작품군에서 발견되는 해리 장애 병증은 당사자들의 공동체 체험, 타자 체험에서 기인한 정체성의 혼돈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리장애를 단순한 병리현상으로서가 아니라 글쓰기와의 관계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아베의 해리적 감각에서 살펴볼 때 본 작품군은 실패작이라기 보다는 해리 장애에 저항해 가면서 해리현상을 고도의 경지에서 성공적으로 조형해낸 수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아베의 이 3부작을 결과적 측면에서의 실종3부작이라고 부르기보다, 과정적 측면에서 해리3부작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注】

1) アニーチェッキ.「安部公房-捜査=探究の物語(『新潮』1990. 1)[아니 체키는 아베 문학의 보편성이 서구에서의 일본문화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2) マイケル フジモト キージング.『なぜ彼はそんなに素晴らしいのか-村上春樹がアメリカで成功する理由』ユリィカ 2000、3月
3) 安部公房.「私の文學を語る-秋山駿とのインタビュー」(「三田文學」, 1968.3)
4) 黒澤聖子.「ヒューマニズムを中心に」 (「三田文學」, 1968.3)
5) 波潟剛.「安部公房失踪三部作論」(筑波大學 比較・理論文學 碩士學位論文, 1996) [나미가타 쓰요시는 이 작품군을 실종이란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종3부작이라고 호칭 분석하고 있다. 본인은 등장인물의 실종이란 측면에 한정짓지 않고, 작가 혹은 내레이터의 실종과 독자의 실종이란 측면을 포함하여, 이 세작품을 실종3부작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 실종이란 사회적 현상이, 해리장애(解離障碍)라는 정신적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작품군들을 해리3부작이라고 호칭하고자 한다. 실종이 결과라면 해리장애는 그 결과에 선행하는 원

인들에 내재한 법칙이라 할 수 있다.]

6) 三木卓.「非現實小說の陷穽-安部公房『砂の女』をめぐって」(「新日本文學」,1963.11)
7) 上總英郎.「オプティミストの變貌」(「三田文學」1968,3)
8) 高山鐵男.「他者からの逃亡」(「自由」,1972.2)
9) 최인훈.『문학과 이데올로기』『최인훈 전집 12권』, 문학과 지성사, 1979. 77면.
10) 아베의 운전취미는 다음 자료를 살펴보면 알수 있다.「多摩丘陵のドライブ」『安部公房全集』(全15券) 또한 그의 사진취미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다.「安部公房と寫眞」「國文學」(學燈社 1997.8)
11) 安部公房.「睡眠誘導術」「笑う月」『笑う月』(東京. 新潮社.1984) [아베는 이 에세이에서 잠이 오지 않을때 기병대를 활로 쏘는 인디언이 되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웃는 달에 쫓기는 꿈은 본 에세이의 제목이기도 하다.]
12) 자폐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졸고를 참고할 것. 홍병기.「아베 고보(安部公房)의『모래의 여자』(砂の女)의 주제론- 자폐적 도망에서 사회적 관계회복으로」한국일본근대학회, 2002. 5.
13) 아버지가 퇴근해 돌아온 후 또 한명의 아버지가 돌아와 먼저 돌아온 아버지를 쫓아내자, 먼저 돌아온 아버지는 무기력하고 슬픈 표정으로 쫓겨나는 것을 어린 주인공이 지켜보는 내용의 꿈이다.
14)「나」는 자신과의 정사를 거부한 아내에게 복수하고자 가면을 만들어 쓰고 아내를 유혹하지만 유혹에 넘어온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거짓으로라도 밀회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분열된 자아의 소유자이다.
15) 물론 정체성은 셋뿐만이 아니라 둘 넷으로도 분리될 수 있다. 그림 1 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셋으로 분리했다.
16) 기억이 구획으로 단절됨으로써 기억사이의 연속성이 단절되 기억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된다.
17) 安部公房.『他人の顔』(東京;新潮社.1968) 246-247면「彼……戻りましたか？」「ええ、でも、すぐにまた、仕事たとか言って…」「あなたが、出てくれてよかった。彼が出たら、すぐに、切るつもりだったんだ……」自分の無謀さの、辻褄をあわせるくらいの、輕い氣持で言ったことだったが、おまえはしばらく、黙り込み、それから細い聲でこう言った。「可哀そうですわ……」
18) 신응삼.「해리 경향성과 외상적 경험의 기억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아베고보의 전쟁 체험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에 상세하다 홍병기.「아베 고보의 보편성과 원체험」「일본학클럽 (http://japnanology.org)」(2003.1.11)
19) 安部公房.『他人の顔』(東京;新潮社.1968) 214-215면「もう二十年以上も前のことだが、ぼくは赤ん坊の遺棄死体を見たことがある。その死体は、學校の裏の草むらの中に、仰向けになってころがっていた。たしか、野球のボールを拾いに行って、偶然見つけたのだったと思う。死体は、ゴム鞠のようにふくらんで、全体ほんのりと赤味をおびていた。口のへんが動いたように思ったので、注意して見ると、數知れぬ蛆が唇を破って、うごめいているのだった。動轉したぼくは、それから數日、ろくに、食事も喉を通らないような有様だった。
20) 실종3부작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기억상실은 불타버린 지도의 탐정인「나」의 그것을 들 수 있다.
21) http://www.skepdic.com/mpd.htm
http://www.rathinker.co.kr/skeptic/mpd.htm
22) 安部公房.「燃えつきた地図」『安部公房全集 21卷』(東京, 新潮社, 1999) 223면「「よく、人に聞かれるよ。どうして興信所の調査員なんかになったのかって。そのときぼくが、なんと答えると思う？」「どうせ本当のことなんか言わないんでしょう。」「こう答えるのさ。妻が、私の素行調査をするために、探偵を雇ったんですよ。ところが、その探偵が、途中で寢返って、ぼくに口止め料を請求したんですね。ぼくにも弱味があったことは、事實ですが、信頼というものを、こんなふうにもてあそばれちゃ、もう世間向きの顔をつくっているのが、馬鹿らしくなってしまって……」

23) http://www.skepdic.com/mpd.html ; http://www.religiorstolerance.org.mpd_did.htm
[이와 같은 설정은 리처드 러시(Richard Rush)감독의 『컬러 오브 나이트』(Color of night 1994)와 스파이크 존스(Spike Jonze)감독의 『존 말코비치 되기』(Being John Malkovich 1999)와 같은 영화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할리우드 스릴러에 있어서는 단골 메뉴로 사용되고 있다.]

24) 「연극인가 진실인가 전현주씨 공판 검찰-변호 공방」(「동아일보」,1998. 2 .3)

25) 신응삼.「해리 경향성과 외상적 경험의 기억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6)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일본인 철수는 아베 고보와 같은 식민 2세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1944년 패전이 가까워옴에 따라 진단서를 위조하여 헌병의 눈을 피해 조선을 경유하여 봉천으로 돌아간 아베 고보를 맞이한 만주의 정치적 극한상황은 그에게 원하던 고향을 느끼게 해줄 수 없었다. 당시 아베의 고향상실감은 『무명시집』(無名詩抄, 1947)과 『끝난 길의 이정표에』(終りし道の標べに, 1948)에서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점령군에게 가택을 빼앗기고 시내를 전전하다 그해 말 간신히 귀향(引揚げ)선에 승선하여 돌아오던 중 선상에서 콜레라가 발생하여 배 위에서 환자가 발광하며 죽어갔던 상황은 장편소설 『짐승들은 고향을 향하고』(獣達は故郷をめざす,1957)의 모티브가 된다.일본에서 태어나 만주에서 성장한 식민2세 혹은 홋카이도 식민 3세인 아베 고보에게 있어서 고향은 일본일 수도 만주일수도 없었으며 패전으로 인해 철수해온 일본은 이방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베의 공동체 체험의 실패 및 낙오에 대해서는 「아베 고보의 보편성과 원체험」에서 다루었다.

27) 즉 본인은 의사다중인격장애자와 <진정한>다중인격장애자를 구별해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다중인격으로 불리는 병증들이 실은 공동체체험과 트라우마에 기인한 연극적(자신이 인식못한다 하더라도) 해리 장애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8) 자기 완결적 글쓰기로 내레이터가 붕괴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이곳에서 다룰 수 없으므로 졸고- 홍병기「아베 고보(安部公房)의「글쓰기 행위」의 의미고찰 -실종 3부작을 중심으로- 」 고려대대학원 석사 2002-의 3장「아베 고보의 내레이터의 특징」을 참고 할 것

29) 安部公房『砂の女』(東京; 新潮社, 1981) 108면「作者になりたいっていうのは、要するに、人形使いになって、自分を人形どもから區別したいという、エゴイズムにすぎないんだ。女の化粧と、本質的には、なんの変りもありゃしない」

30) 전게서 108면「作家になれないのなら、べつに書く必要なんかありゃしないんだ！……ところで、駄賃をもらいそこねた子供は、どんな表情をしていたっけ？」

31) 『불타버린 지도』의 실종자 네무로 히로시는 버스 시간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정류장에 가는 길에 다른 출근자들의 흐름에 맞춰 뛰지 않을 수 없다. 버스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지만, 다른 출근자들보다 늦게 도착하면 물론 제 시간에 버스를 탈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버스시간표 밖에 현실세계는 가변적이다. 그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세계이다.

32) 安部公房,「燃えつきた地図」『安部公房全集 21卷』(東京, 新潮社, 1999) 141면.

33) 전게서 134면「知恵の輪というやつは、切り離すことよりも、もとどおりに組合わせることのほうが、ずっと樂だし自然なのだ」

34) 전게서 311면「過去への通路を探すのは、もうよそう。」

35) 무라카미 하루키의 『태엽감는새』(ねじまき鳥クロニクル ,新潮社,1994)에서 실종되는 아내인 구미코 역시 클립을 놓아두고 사라진다.

36) 安部公房,「燃えつきた地図」『安部公房全集 21卷』(東京, 新潮社, 1999) 134면「目を開けたまま夢にうなされ、幻の夫にくすぐられて笑いころげ、獨り言におぼれている、アルコール中毒になりかけの女」

37) 전게서 124면「私も、もう、待ちきれなくなったのよ……」

38) 필자는 3부작의 인간형을 <모래로서의 인간형>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 이는 현대도시를 사막으로서의 세계로 인식하는 사고와 관련된다. 물론 사막을 부정적인 의미에서나 단순히 불모성이란 차원에서 현대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외부세계와 개인이 이상적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세계인식의

차원에서 사막으로서의 세계인식인 것이다. 현대도시가 사막이라면 인간 역시 사막에 걸맞는 생활양식을 선택하여 끊임없이 유동하면서 이동해가야 하는 것이 숙명인 것이다. 농촌적 생활양식은 이동하지 않고 정착, 정주하는 삶을 의미한다. 참고.홍병기「아베 고보(安部公房)의「글쓰기 행위」의 의미고찰 -실종 3부작을 중심으로-」고려대대학원 석사, 2002.

39) 安部公房.「燃えつきた地図」『安部公房全集 21卷』(東京, 新潮社, 1999)「他人の眼になって見るってのは、面白いものだな。いままで、思いもしなかったことが、こんなふうにひょいと見えてくるんだから……」

40) 安部公房.『他人の顔』(東京;新潮社.1968) 152면「それじゃ、一体、何になりたいって言うんだ？その氣になれば、おまえなんぞ、今すぐにでも引っぺがしてしまえるんだからな。しかし仮面は、平然と、事もなげに受け流し、分っているだろう、誰でもないものにさ。これまで、さんざん、誰かでいるために苦勞を舐めさせられて來たんだから、せっかくこんな機會をつかみながら、もう一度誰かになるなんて、そんな貧乏籤は願い下げにしたいものだね。君だって、まさか、おれを誰かに仕立てたいなんて、本氣で思っているわけじゃないんだろう？思ったところで、どうせなれっこないのだから、まあ、このままでやってみるとしようじゃないか」

41) 安部公房.「書齋にたずねて」『安部公房全集24』, 144면.

安部公房の「書く行爲」の意味

解離の空間としての「書き」

洪 秉 基

所謂、「失踪３部作」と呼ばれている、安部公房の『砂の女』(1962)、『他人の顔』(1964)、『(燃えつきた地図』(1967)は、作品の開かれている結末と關連して「構成の失敗」、「均衡感覺の欠落」のような批判を受けた作品群である。この評価は讀解の難解さと通底しているという次元で、多重人格障碍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とも言われてきた解離性自己正体性障碍(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の側面で分析する必要があると思う。

多重人格障碍は一人の人間の中に二つあるいはそれ以上の人格が存在するという、一見非現實的な狀況を前提とすることに、その眞僞が疑われてきたのだが、これを解離の次元で考える場合、これは現實克服のために、自分を他者化(或は異人化)する行爲、卽ち、正体性の失踪と關連してみると、もっと易く理解できるものだと思う。

興味を引くことは　三部作の主人公達が、作品世界の中で誰もが何かを「書く」という点である。書く行爲にとって書く自分と書かれる自分が分裂するように、自分を他人化することができる「書く行爲」に內在する自己分裂的な屬性に引かれて結局失踪狀態に落ちる『他人の顔』の主人公の自閉的な「書く行爲」は結局　作家安部公房の開かれた結末の一つの手掛かりを提供する。開かれた結末が持っている意味は脫走の空間としての「書き」ではなく、向かい合いの空間としての書きのトポスにならざるを得ないということではなかろうか。作家は　この3部作という「書きのトポス」を提示する過程で作家自分も解けない實存的な問題を他者から隔てられたペルソナ達に讓ったすえ、彼らの分裂を止められなかった狀況を自分の書く行爲を通して露呈している。

だから、作品論の次元でこの作品群の開かれた結末は、構成の失敗、均衡感覺の欠落だと把握する事も出來るだろう、しかしあの均衡感覺を取戻すためには作品の世界の中に不在する讀者達を視野に入れて、はじめてこの三部作は構成的均衡を確

保するのだと思う。

本作品群の中で認められる＜解離障碍病症＞は　彼、或は彼女らの共同体体驗、他者体驗に起因した正体性の混沌を表していることで、解離障碍を只の病理現狀としてではなく、「書く行爲」との關わりにおいてつっこんでいる安部の解離的感覺の次元で考えると、この作品群は失敗作ではなくて　解離現狀を巧みに造形した成功作であったと思う。安部のこの3部作を解離3部作として呼ぶ理由はここにある。